

한국의 아세안 연구: ‘아세안학’의 모색?

김형중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한국 내 아세안 연구는 아세안의 설립과 제도화 진행에 따른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양적·질적으로 성장해왔다. 아세안의 발전이 동남아시아 정체성 형성에 기여했듯이 아세안 연구는 전통적 분과학과 지역연구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차원의 동남아시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글은 국내 아세안 관련 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 등을 검토하여 아세안 연구 동향과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아세안공동체의 출범,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대, 한-아세안 관계의 심화 등은 아세안의 가치와 관련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관계 분야의 전공자 그룹이 매우 제약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증가하고 있다. 아세안공동체 건설에 따른 정책적 연구를 넘어 ‘아세안학’ 모색을 위한 정책적·학문적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아세안,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동아시아, 아세안학

I. 서론

1967년 동남아시아 5개국(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간 느슨한 협의체로 출발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이하 아세안)은 지난 50년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견인했으며 공동체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동남아 10개국으로 확대된 아세안은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했다(Acharya, 2000: 12). 1999년 캄보디아의 가입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적 경계와 아세안의 제도적 경계가 일치되었다. 2015년 말 아세안공동체 출범은 역내 통합을 촉진하는 한편, 정치 경제적 대외 협상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세안공동체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세 축으로 구성됨에 따라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협력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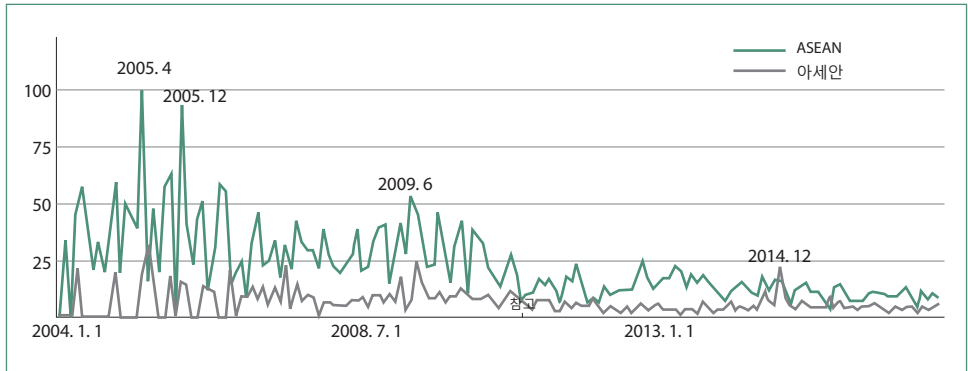
아세안공동체의 출범은 아세안 발전에 있어 획기적 전환을 의미한다. 첫째, 기존 지역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칙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통합의 추구를

의미한다. 둘째, 아세안공동체는 아세안의 주요원칙과 이른바 아세안 방식의 기존 원칙과 운영기제의 연속성과 변화라는 이중적 과제를 수행한다. 셋째,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아세안의 영향력과 일반의 인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민중중심적(people-oriented) 지향에 따라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공동체 창설을 계기로 제기되는 지역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세안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등 지역적 의미가 실생활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그간 다수의 아세안 연구가 국제관계와 지역주의의 사례로 제한되었던 반면, 최근 아세안의 제도적 발전에 따라 다양한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 관련 역내 교육 및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아세안 연구소들이 새롭게 설립되고 있다. 이는 관련 연구의 증가와 더불어 관련 연구자 양성을 위한 동남아시아 아세안 관련 대학원 프로그램도 증가하고 있다. 태국(타마삿대학교), 말레이시아(말라야대학교), 그리고 5개국 개방형대학교(Universitas Terbuka(인도네시아), Open University of Malaysia(말레이시아), Sukhothai Thammathirat Open University(태국), the Hanoi Open University(베트남), UP Open University(필리핀))가 공동으로 개발한 석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세안공동체 건설은 동아시아 협력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동남아시아 공동체로의 지역주의 심화와 동아시아로의 지역주의 확대라는 이중운동(double movement)으로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한-아세안 관계 발전에 따라 한국에서 시민들의 아세안 인식과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글과 네이버 등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아세안 검색 추이는 한-아세안 행사와 아세안 현안 발생 등의 특정 시기에 관심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아세안’ 검색어를 사용한 ‘네이버’ 검색보다 국내에서 ‘구글’을 통한 검색이 다양한 시기에 걸쳐 검색빈도가 높았다. 네이버 검색의 경우 2015년 12월 아세안 공동체 출범 시기에 검색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¹ 반면 국내에서 구글을 통

¹ <http://ca.datalab.naver.com/ca/step1.naver>.



출처: <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date=all&geo=KR&q=%EC%95%84%EC%84%B8%EC%95%88,asean>.

그림 1 '구글 트렌드' 국내 이용자의 '아세안' 및 'ASEAN' 검색어 추이(2004~현재)

한 아세안 검색은 주요 사안이 발생했던 시기에 고르게 관심이 분산되었다. 구글 검색에서 'ASEAN' 검색 건수는 '아세안' 검색어에 비해 훨씬 많았다. '아세안' 검색어가 아세안공동체 출범을 전후한 2015년에 집중된 반면, 'ASEAN' 검색은 한-아세안 정상회담, 한-아세안 FTA 등의 시기에 고르게 높은 검색 건수를 기록했다. 주요 시기별 사안으로 2005년 4월 한-아세안 FTA 협상 개최, 2005년 12월에 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및 한-아세안 FTA 타결, 2009년 5월 한-아세안 서비스협정 발효, 2009년 6월 한-아세안 투자협정 서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반의 관심은 이후 살펴볼 아세안 관련 연구 결과물 추이와도 관련이 있다. 국회 도서관 사이트에서 '아세안' 관련 연구를 조회하면 한-아세안 FTA의 체결 이후에 경제학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아세안과 연관된 50개의 검색어 중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와 '안보협력'을 제외하고 경제 및 FTA와 관련된 것들이다.² 아세안의 제도적 발전과 한-아세안 현안에 관련된 연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국내 아세안 관련 연구물들의 추이와 특징을 고찰하여 아세안 연구

² <http://dl.nanet.go.kr/SearchList.do>

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국내 대학에 제출된 석·박사 학위 논문, 국내 등재 학술지 논문, 단행본, 기타 연구물에 대해 주요 시기별 및 연구 분야별 추이를 분석할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아세안’과 ‘ASEAN’으로 검색된 주요 연구물 중 단순히 동남아 지역을 지칭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연구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³ 예를 들어 제목과 주제어에 ‘아세안’ 또는 ‘ASEAN’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연구 대상과 내용은 개별 국가 시장진출, 투자확대 등 동남아시아 국가별 사안의 비교 또는 단순 합인 경우는 아세안 관련 연구 목록에서 제외했다. 아세안을 이해하는 데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아세안을 분석단위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국가군의 연구에 대해 ‘아세안’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경제적 측면의 규모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 정치적으로는 집합적 단일체(collective entity)로 상정하여 전략적 가치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세안 연구는 지역 분석 단위만으로 정의할 수 없다. 아세안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수준을 포괄한다. 즉, 주요 지도자의 개인적 요인이 지역주의와 아세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거나 특정 국가의 외교정책의 아세안에 대한 시사점, 국제 환경의 변화와 아세안의 역할을 고찰한 연구들은 비록 분석의 단위는 상이하지만 아세안 연구로 분류된다.

아세안 관련 연구물들의 시기별 연구 추이를 살피기 위해 5년 단위로 지역기구 및 제도, 경제협력, 정치안보, 사회문화, 동아시아, 한-아세안 등 6개 분야로 구분했다. 지역기구와 제도에 중점을 둔 연구는 국제관계학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아세안 연구 접근법에 해당한다. 탈냉전기에 본격화된 경제협력은 경제통합의 관점에서 아세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과 연구를 촉진시켰다. 정치안보 분야는 영토분쟁, 정치 갈등 및 비전통적 안보 이슈와 관련 아세안의 역할과 영향을 다루는 연구를 포함한다. 사회문화 분야는 정체성, 문화, 환경, 빈

³ 아세안 회원국이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아세안’과 ‘동남아시아’ 두 단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발견된다. 최근 동남아시아 현지 신문에서 동남아시아에 관련된 지면 이름을 ‘ASEAN’으로 칭하는 등 일상에서도 두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 학술 연구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아세안 국가들로 지칭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곤 등의 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아세안의 역할과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연구가 해당된다. 동아시아 항목은 동아시아 지역주의 내 아세안의 역할과 더불어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아세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한-아세안 연구는 한국과 아세안의 제도적 협력에 관한 연구들이다.

II. 아세안 연구 동향

아세안 관련 연구는 냉전, 경제위기, 민주화 등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대응에 따라 부침을 기록했다. 아세안 설립 목표로 경제와 사회 분야의 협력 촉진이 공식적으로 강조됐으나 이는 냉전시기 정치적 민감성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초기 아세안 연구들은 국제관계학 중심의 접근을 통해 지역협력과 지역기구의 사례로 분석되거나 강대국 중심의 정치안보적 사안과 연계되었다. 탈냉전기 한국과 경제관계 심화, 1997~1998년 경제위기 이후 지역협력 강화, 한-아세안 FTA, 그리고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은 아세안 연구 분야를 다양화했으며 특히 경제학적 접근이 많아졌다. 다음에서는 아세안의 제도적 발전과 연계하여 각 연구물의 형태별, 시기별, 분야별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아세안의 제도적 발전과 관련 석사학위 논문 동향

국내 대학에 제출된 아세안 관련 석사학위 논문은 약 200건에 달한다. 학술적 가치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작성 당시 현안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석사학위 논문의 특성상 관련 논문 추이를 통해 아세안의 현안과 국내 학술적 접근 추이와 상관관계를 가늠할 수 있다. 아세안 관련 최초 석사학위 논문의 제출은 1967년 아세안 설립 5년 후인 1972년이다(김대식, 1972). 1978년 양승윤의 석사논문 등 1980년까지 아세안 관련 논문 편수가 3편에 그쳤는데, 이는 해당기간이 아세안 설립 이후 초기 발전 단계로 실제 아세안의 활동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 연구들은 아세안이라는 지역협력체에 대한 제도적 이해를 목적으로 이의 설립 배경과 발전 과정의 문제를 다루었다. 아세안

의 본격적인 제도화는 1976년 제1차 아세안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아세안회원국들은 베트남의 통일을 직접적인 안보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아세안 사무국 설치에 합의하고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TAC)'을 체결된 것도 1976년이였다. 아울러 경제 및 사회 분야 협력 프로그램도 다수 도입되었다.

국내 아세안 관련 연구는 1980년대 초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당시 경제교류가 증가하고 한국이 아세안과 외교관계 심화를 원했던 시기다. 전두환 정권은 취약한 국내 정치적 정통성을 만회하고 북한과의 외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교를 활용했다. 그 일환으로 아세안과의 대화상대국 개설을 추진했다. 아세안 대화상대국 제도란 아세안이 주요 강대국과의 관계심화와 경제실익을 위해 설립한 공식적 대화 채널이다. 대화상대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국가를 포함했다. 1981년 대화관계 수립을 위한 과정의 일부로 대통령의 아세안 5개국 순방이 이루어졌다. 당시 순방을 '아세안국가 5개국 공식방문'으로 명명하여 국내 아세안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김형중, 2016: 54). 1980~1985년 시기에 아세안 관련 연구도 증가했다. 아세안 자체에 대한 소개와 분석의 의미를 담은 제도적 접근과 관련된 7편, 경제통합에 주목한 논문 1편이 각각 작성되었다. 이 시기에 경제협력, 시장진출 방안 등에 관한 논문도 12편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아세안 개별 회원국 수준의 분석에 그쳐 아세안을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파악하지 않아서 아세안 관련 연구로 집계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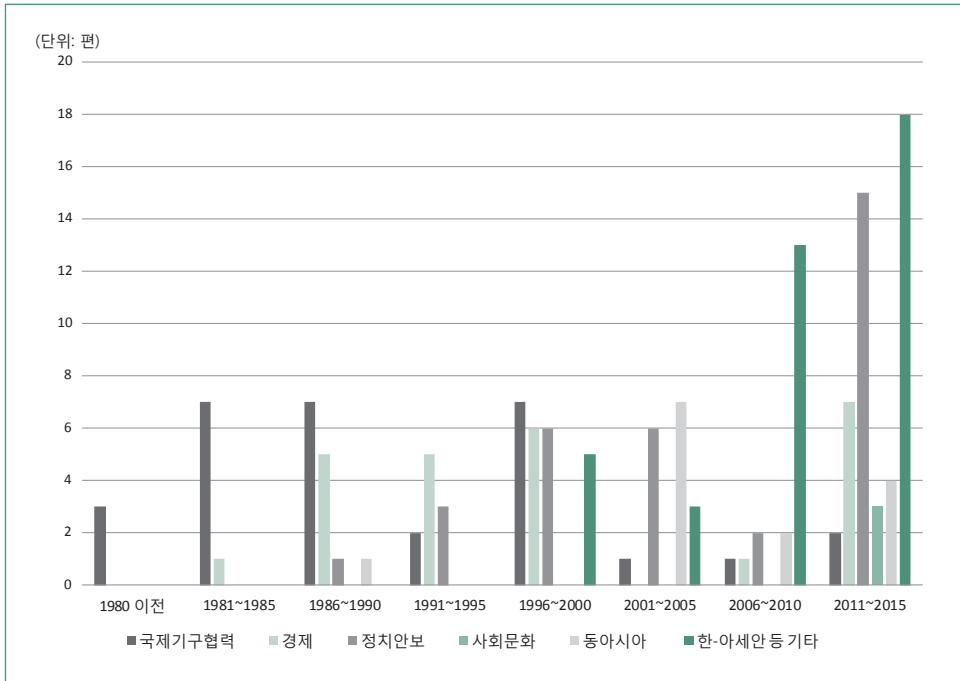
1980년대 중후반에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1989년에 한국이 아세안의 '부문적 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이 되었다. 이 시기의 아세안 관련 연구 중 지역협력과 제도적 발전에 대한 연구는 7건에 달했다. 그중 아세안과 유럽공동체(EC) 간 비교연구(이금찬, 1987)도 진행되었으며 지역통합의 역사와 지역기구의 특성에 대한 고찰이 주를 이루었다. 같은 기간 아세안 경제협력 관련 연구는 5건으로 주로 경제 '통합'이 아닌 '협력'에 주목하여 당시의 아세안 현실을 반영했다. 한편 아세안 연구로 분류할 수 없으나 한국 기업의 아세안 교역 및 투자 현황과 전략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이 다수 작성되었다. 아울러 대외적 사안과 연계한 아세안 연구가 등장했는데 캄퓨치아(캄

보디아) 분쟁의 아세안에 대한 영향(이순학, 1987)과 중국의 대 아세안정책(윤종진, 1987)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90년대 초반(1991~1995)에는 냉전해체에 따른 역내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의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냉전질서 해체는 아세안 회원국의 확대를 가로막았던 정치적 장벽을 제거했다. 1995년 마침내 베트남이 아세안에 가입했다. 또 다른 변화로 지역협력의 축이 안보중심에서 경제협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1992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아세안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greement, AFTA)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추진되었다. 한편 이 시기는 지역주의 확대가 모색되었던 시점이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냉전해체에 따른 힘(power)의 공백과 아세안의 단결력 약화를 우려하여 1994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결성을 주도했다. 이 시기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들도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 과정을 반영했다. 아세안자유무역협정, 경제협력의 가속화 및 경제통합 등 아세안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는 5건에 달했다. 지역협력체와 안보 관련 연구는 각각 2건으로 정체된 반면, 한국 기업의 대아세안 진출 방안 등과 같은 아세안 회원국 시장에 대한 연구는 10여 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시장 관련성 연구는 아세안 경제협력과 제도보다는 개별 회원국에 대한 연구의 성격이 짙어 아세안 관련 연구 집계에는 제외했다.

1990년대 중후반(1996~2000)에 아세안 회원국은 마침내 10개국으로 확대되었다.⁴ 1995년 베트남의 가입에 이어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그리고 1999년 캄보디아가 가입함으로써 아세안과 동남아시아의 구성원이 일치되었다. 해당 시기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 24건 중 아세안 회원국 확대와 관련된 연구는 3건에 달했다. 아울러 아세안의 제도 관련 연구는 이전의 ‘현황’ 중심에서 ‘개선’과 ‘한계’ 등 비판적 접근이 등장했다. 아세안자유무역협정 관련 연구 3편과 아세안과 한국을 포함한 대외 경제협력에 관한 논문이 증가했다. 안보와 관련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주목하는 4편의 논문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한반도 안보에의 영향에 대한 논문 1편이 제출되었다. 주목할 점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과 아세안

⁴ 동티모르(Timor-Leste)는 2011년에 아세안 가입 신청을 한 후 아세안회원국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RISS 데이터베이스 기반 저자 작성.

그림 2 아세안을 주제로 작성된 5개 주요 분야의 국내 석사학위 논문 추이

자유무역협정 전개와 더불어 한-아세안 관계 연구에 있어 종전의 개별 회원국이 중심이 아닌 ‘아세안’과의 관계에 주목한 5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다. 2000년대 초반(2001~2005)은 아세안 외연 확대 이후 역내 지역협력의 심화와 동아시아로의 지역주의가 심화된 시기였다. 2003년 인도네시아 발리 정상회담에서 아세안공동체 건설에 합의하고 이를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세 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을 넘어 ‘통합’의 비전이 제시되었다. 1997~1998년 경제위기 이후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이 제도화되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아세안 + 3(APT)의 제도화, 2005년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출범은 이른바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에 기반했다. 한편,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아세안과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강화했다. 주요 비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과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는 한편 FTA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

행했다. 해당 시기의 석사학위 논문들은 이러한 지역협력의 제도적 변화에 주목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대에 따른 아세안의 역할에 관련된 연구는 7편에 달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도 대외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등장했다. 구체적인 현안을 연구해 논문으로 발표되기까지 시간적 격차로 인해 오히려 논문 편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관련 논문 편수가 증가했다.

2005~2010년 시기에 아세안은 공동체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협력을 강화했다. 2008년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이 발효되어 기존 협정을 포괄하며 공동체 건설을 향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다. 아세안공동체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공동체 세 축에 대한 청사진을 채택했다. 한국은 아세안과 상품, 서비스, 투자 부분에서의 자유화 합의를 바탕으로 FTA를 체결하고 발효시켰다. 이 시기의 아세안 관련 연구의 특징은 한-아세안 FTA 및 중국-아세안 FTA에 따른 영향 등에 관련된 연구가 크게 증가한 점이다. 같은 기간에 제출된 19편의 석사학위 논문 중 12편이 이들 사안에 주목했고, 아세안 자체의 이슈와 제도적 발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1~2015년 기간은 2015년 말 아세안공동체 공식 출범을 위한 아세안의 역내 협력의 심화에 집중되었다. 아울러 남중국해 분쟁 등에서 중국과 미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세안 내부의 결속력과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 시기 아세안 관련 석사학위 논문은 총 49편으로 수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아세안 제도에 관한 연구는 2편에 그쳤지만 ‘아세안 방식’, 아세안 규범 등 아세안 내부의 이슈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치안보 관련 연구는 15편이다. 특이한 점은 그중 11편이 동남아 유학생에 의해 영어로 작성된 논문들이다. 현지의 관점과 현지 자료 접근에 유리한 유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은 한국 내 아세안 연구에 있어 양적 증가와 더불어 관점의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많은 편수를 기록한 분야는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연구다. 이 중 11편의 논문이 한-아세안 FTA와 관련된 연구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고찰한 논문도 4편에 달했다. 2016년 이후 석사학위 논문은 11편으로 꾸준히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경제 분야 협력과 한-아세안 FTA 등 특정 주제에 편중되고 있다.

2. 박사학위 논문과 핵심 연구자 그룹의 형성

국내 대학에 제출된 아세안 관련 박사학위 논문은 8편에 그치고 있다. 1990년대 이전에 작성된 아세안 관련 박사학위 논문은 2편에 불과하다. 최초의 아세안 관련 박사학위 논문은 국제관계학 분야에서 신기능주의를 중심으로 아세안을 분석한 전용(1977)의 논문이다. 변창구는 “아세안의 지역안보협력”(변창구, 1987a)을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 이는 초기 아세안의 설립과 발전과정의 설명에 있어 국제관계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던 국제적 아세안 연구 동향과 유사하다. 김석수(1997)는 일본의 대아세안 정책에 대해 연구했다. 역대 주요 행위자로서의 아세안의 변화 가능성과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다. 변창구와 김석수는 아세안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도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며 핵심 아세안 연구자 그룹을 형성했다.

1997년 제출된 서기준의 논문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아세안의 발전과정을 연구했다(서기준, 1999). 이원우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제약에 관한 연구 논문을 2008년 경남대학교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이원우, 2008). 이후 2편의 논문은 남중국해분쟁 연구(최기출, 2010)와 MERCOSUR(Dias, 2013)-아세안 비교연구다. 석사학위 논문과 달리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특정 시기 또는 분야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기 힘들다.

국내 연구자가 아세안 회원국 내에서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례는 10건에 달한다. 은인영은 1979년 일본 게이오기주쿠 대학에서 “아세안에 관한 수량적 분석(ASEANに關する數量的分析: 1967~1976)”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제학 분야에서 박인원은 1993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아세안경제 통합에 관한 논문(Static, Dynamic, and Trade-Link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Estimation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ASEAN)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광섭은 1995년 필리핀의 UTS(University of Santo Tomas)에 박사학위 논문(The Response of ASEAN and Its Member Countries to the Challenge of Global and Regional Changes Created by the Post-Cold War Era)을 제출했다. 박선희는 2006년 프랑스 파리 8대학(Univ. de Paris VIII)에서 “아시아유럽 회의(ASEM)에서의 아세안의 역할(Asia-Europe political relations and the rise of inter-

표 1 아세안 관련 박사학위 논문 추이

기간	1980년 이전	1981~ 1985	1986~ 1990	1991~ 1995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현재
박사학위 (건)	2	0	1	2	3	2	4	3
연구분야	국제기구 협력	-	정치안보	경제/ 정치안보	협력/ 경제	경제/ 국제기구협력	정치안보/ 국제기구협력	국제기구 협력

*외국대학 박사학위 논문 포함

regionalism: the role of ASEAN in ASEM”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 김형중은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에서 아세안 규범의 진화(The Evolution of ASEAN Norms: Development, Adaptation and Transformation)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다. 배기현은 2014년 캐나다 토론토대학(University of Toronto)에서 아세안의 ‘매력과 자율성의 이중 적자’(Attraction-Autonomy Deficits) 문제를 분석한 논문(Managing International ‘Relations’: ASEAN’s Dilemma of Attraction-Autonomy Deficits and Ideational Changes after the Cold War)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러시아, 독일에서 유학하며 유학 국가와 아세안의 관계 또는 비교 연구 사례로 아세안과 관련된 논문들이 작성되었다. 황규득이 2006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리토리아대학(University of Pretoria)에 제출한 아세안과 아프리카 지역 비교연구(The Mechanisms of Politico-Security Regionalism in Southeast Asia and Southern Africa: A Comparative Case Study of ASEAN and SADC)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윤영덕은 2005년에 베이징대학교에서 “탈냉전기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의 중국과 아세안”이란 제목의 박사논문으로 제출했다. 서미애는 러시아의 국립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에서 2004년 “소련/러시아의 대외정치 속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967~2002년”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두철은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University of Heidelberg)에서 “지역통합: 아세안과 유럽연합의 비교”란 제목의 논문으로 2000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비교연구 사례로 아세안을 다룬 연구자들은 아세안을 해당 유학 국가의 사안에 연구 초점을 맞추었기에 지속적인 아세안 연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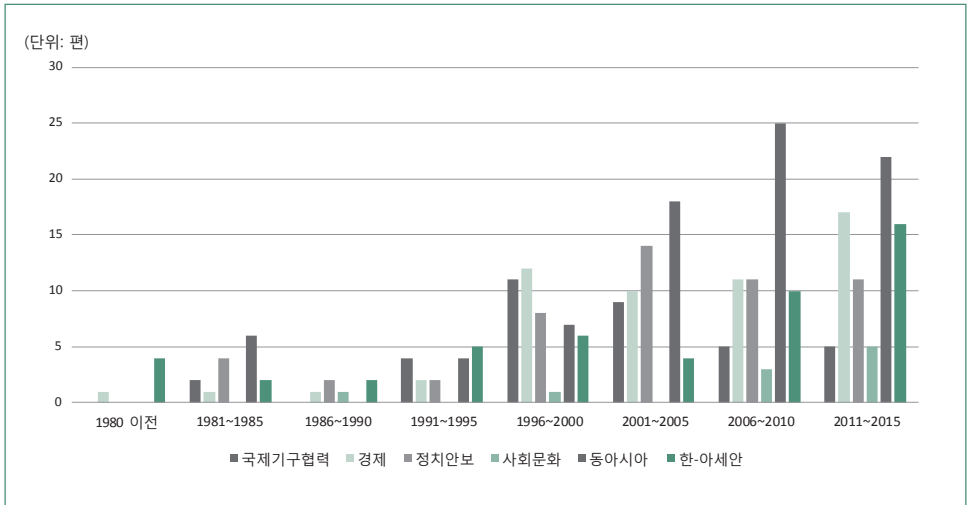
시대별 현안과 국내의 수요에 민감했던 석사학위 논문에 비해 학문적 기여성

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박사학위 논문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석박사 학위논문 모두 아세안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현실은 핵심연구자 그룹을 형성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세안 연구자 그룹의 특성은 학술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3. 학술지 논문 동향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발표된 아세안 관련 논문들은 국내 아세안 연구 동향을 가늠하는 핵심 연구물들이다. 아세안 관련 연구 논문을 주요 시기별, 주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연구자 그룹의 연구 현황, 연구 그룹 또는 학술지의 분절화 등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저자명이 누락된 보고서, 뉴스레터 등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저자인 논문은 제외했다. 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아세안 개별 회원국에 연구 또는 이의 단순한 합 또는 비교 연구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총 300여 편에 달하는 아세안 관련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아세안 연구의 추이를 보여준다.

1980년 이전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아세안 관련 연구는 총 5건이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한국의 외교 및 경제관계 측면에서 아세안을 다루었다. 북한과의 외교경쟁과 한-아세안 회원국들 간 교역이 증가하던 시기의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981~1985년 시기에 발표된 16편의 논문 중 다수는 냉전시기 아세안 내부 갈등과 대외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었다. 주목할 점은 고려대 아세아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아세아연구』 28권 1호에 아세안 특집에 가깝게 6편의 아세안 대외 관련(역내 갈등, 인도차이나, 중국, 일본, 미국, 소련과의 관계) 영어 논문이 실렸다는 것이다. 아세안 자체의 내부 메커니즘과 협력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지만 아세안이 갖는 국제정치상의 전략적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기간에 발표된 다른 연구들도 주로 아세안과 한국 및 주요 국가 간 안보관계에 주목했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 순방 등 아세안 대화상대국 지위를 얻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1980년대 후반(1986~1990)에 아세안 관련 연구는 6편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다만 연구 분야는 경제협력, 정치안보, 사회문화에 걸쳐 고르게 분포했다. 아세안과 한국의 협



출처: RISS 데이터베이스 기반 저자 작성.

그림 3 아세안을 주제로 작성된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 추이

력에 대한 논의도 3편에 달했다.

1990년대 접어들어 아세안 관련 연구는 탈냉전과 경제협력이라는 현상에 주목한다. 아세안자유무역협정 진행에 따라 관련 연구가 등장했으며(이효영, 1994), 탈냉전이라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아세안의 역할과 이의 한국에 대한 영향 등에 관련된 연구가 이어졌다(한승주, 1992; 배공찬, 1993). 이러한 연구 경향은 향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아세안의 역할에 주목하는 연구들로 이어진다.

1996~2000년 시기는 아세안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하여 45편이 발표됐다. 다수의 연구가 아세안의 회원국 확대에 따른 영향에 주목했다. 경제 분야에서 아세안자유무역협정 출범 이후 역내외 경제협력의 현황을 진단하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그중 주목할 점은 변창구가 10건의 논문을 발표하며 아세안의 역동성과 제도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주요 연구로는 아세안 회원국 확대와 제도적 발전과 전망(1996, 1998a, 2000a),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1998b), 비핵지대화(1997), 남중국해 분쟁(1998c), 환경변화(2000b) 등에 관한 것이다. 1997~1998년 경제위기와 남중국해 등의 동아시아 및 한국과의 관계 심화와

관련된 연구는 총 13편으로 증가했다.

2000년대 초반(2001~2005) 아세안 연구는 55편에 달하는 논문 수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문화 분야를 제외한 영역에서 고른 성과가 나왔다. 동아시아 차원의 연관성 속에 아세안의 역할과 한계를 파악하려는 연구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아세안 + 3과 동아시아정상회의 등의 제도화와 주요 국가와의 역학관계 및 경제협력 등에 주목했다. 아세안에 대한 이론적 접근도 시도되었다. 구조주의 이론(김한식, 2002), 국제레짐(변창구, 2002a), 유럽연합과의 비교(신두철, 2001)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경제 부문에서는 아세안자유무역협정 연구와 더불어 개발격차 해소에 주목한 연구(이요한, 2004; 문상원 2002)가 진행되었다. 안보 관련 연구에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연구와 더불어 테러리즘(변창구, 2003; 2004b) 등의 비전통적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대외관계에서는 아세안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박사명(2005)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중국의 부상과 지역 차원의 아세안의 대응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자리 잡았다.

2005~2010년 시기의 아세안 관련 연구는 65편으로 양적 팽창이 지속되었다. 해당 시기에 아세안 현장의 채택과 아세안공동체 청사진 채택 등 아세안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다. 그러나 의외로 이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으며, 대신 한국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과 한-아세안 FTA 관련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아세안의 역할에 대해 한국의 전략 분석을 넘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이 시도되었다. 마하티르 리더십의 역할(이재현, 2007a; 2007b), 참여적 지역주의(전제성, 2007), 아세안 지역주의에 대한 역사적 해석(신윤환, 2009) 등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분석한 연구들은 그간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제도적 발전에 주목하던 연구 범위를 확장했다. 한편 아세안의 인권과 지역협력(이동운, 2010), 이주노동(최호림, 2010), 한-아세안 문화협력(김민정, 2006)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연구의 등장으로 아세안 연구의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2011~2015년 기간은 아세안 관련 8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가장 왕성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성주의(변창구, 2011), 현실주의와 제도주의(이재현, 2012) 등 국제관계 분야의 주요 이론적 접근의 적실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관련 연구들도 활발해졌다. 아세안경제공동체에 대한 전

표 2 6편 이상의 아세안 관련 논문이 발표된 주요 학술지 현황

지널명	아세안 관련 논문 게재 편수
동남아시아연구	28
대한정치학회보	15
동남아연구	14
국제정치논총	13
아세아연구	9
한국동북아논총	7
관세학회지	7
동아연구	7
한국무역학회보	6
국제지역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6

망과 영향을 중심으로 발표된 논문들(박변순, 2013; 이충열, 2014; 나희량, 2015)과 정치 안보공동체(김형중, 2014), 사회문화공동체(김형중, 2015)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 전체 논문편수 증가에 비해 아세안공동체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김규식(2013)의 태국의 아세안교육 관련 논문은 사회문화적 이슈에 관한 연구로 주목할 만하다.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공동체를 향한 동력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다수의 연구는 중국 등 강대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 아세안이 체결한 FTA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FTA와 관련된 연구는 총 17편에 달한다. 연계성(배기현, 2015) 등의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6년 이후에도 꾸준히 아세안 관련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아세안공동체에 출범에 따른 후속연구들(변창구, 2016; 이원근, 2016 등)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연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경제통합과 저가항공네트워크(안상욱, 2016), 경제통합과 캄보디아 농산물 수출(공재형, 2016), 연무문제(김진아·이재우, 2016)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학술지를 기준으로 본 아세안 연구동향의 특징은 아세안 관련 논문의 게재가 지역연구 학술지에 편중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관련 연구가 실린 저널은 한국동남아학회가 발간하는 『동남아시아연구』로 총 28편의 관련 연구가 게재되었다. 『대한정치학회보』에 15편,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발간하는 『동남아연구』에 14편, 국제정치학회의 『국제정치논총』에 13편, 고려대 아세안연구소의 『아세아연구』에 9편 등이다. 총 6편 이상의 관련 논문이 발표된 저널은

10개의 저널이다. 『국제정치논총』을 제외하고 관련 연구가 주로 발표된 학술지는 지역연구 학술지들이다. 대표적 동남아시아지역연구 학술지인 『동남아시아연구』, 『동아연구』, 『동남아연구』 등에 아세안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게재되어 아세안 연구가 지역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국제정치논총』과 『대한정치학회보』 등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세안이 갖는 국제기구와 지역 협력으로서의 사례로 주목하는 연구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한정치학회보』의 경우 변창구의 논문이 다수 실렸다. 한-아세안 FTA의 발효를 통해 『관세학회지』, 『무역학회보』 등의 통상 관련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차원에서 아세안의 역할에 주목한 『아세아연구』, 『한국동북아논총』에도 아세안 관련 논문의 게재가 증가하고 있다.

4. 단행본

아세안 관련 단행본의 출간은 60여 편으로 기타 형태의 연구물에 미치지 못한다. 학술적 성격의 단행본 출판은 전용(1979), 안청시 외(1981), 변창구(1987b, 1999, 2002b), 박광섭·이요한(2008), 이요한(2005), 박사명 외(2008), 강영문(2012), 양승윤(1996) 등에 국한된다. 『동남아와 ASEAN』(안청시 외, 1981)은 당시 한국 정부가 아세안대화관계 수립을 추진하던 시기로 아세안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로 아세안 연구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 단행본을 제외한 다수의 경우는 동남아시아 관련 책의 일부 장(chapter)으로 출판되었다.

아세안 관련 단행본의 발간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한-아세안센터 등의 공공기관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정치안보 관련 주제에 대해 국립외교원(전 외교안보연구원)은 2012년 이후 아세안정상회의 및 관련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현안에 대한 연구물을 발간하고 있다. 배궁찬과 이재현(현 아산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그간 14건의 연구물을 발간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아세안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한-아세안 FTA 등의 연구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아세안대표부와 공동으로 『KIEP 아세안브리핑』을 발간하고 있다. 한-아세

안센터는 5권의 아세안 관련(개별 국가 사례 모음과 통계자료집 등은 제외) 책자를 발간하여 아세안의 국내 소개와 인식 증진에 주력했다. 시민강좌, 북 콘서트 등 대중성이 높은 행사와 출판물 발간을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아세안 센터는 자체적으로 연구 수행 기능을 갖추지 않아 관련 학자들의 참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한-아세안 관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단행본으로 한국동남아연구소와 한국동남아학회(2015)가 공동 출판한 “*ASEAN-Korea Relations: Twenty-five Years of Partnership and Friendship*”은 주목할 만하다.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25주년을 기해 아세안공동체 평가, 한-아세안 관계,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회원국들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관계에 대한 전망을 담았다. 동남아 현지학자들을 비롯해 국내 동남아연구자들 25명이 참여한 2014년 부산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결과물을 출판한 것이다. 한-아세안 관계의 학술적 회고와 백서의 역할을 담도록 기획되었으며 영어로 출판한 이후 한글 요약본도 함께 출판되었다. 영어 단행본은 한국동남아연구소가 2016년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개최한 코리아 포럼 등의 국제행사에서 현지 학자, 관료 등에게 배포했다. 이 학술회의와 결과물의 출판은 한-아세안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아세안 관련 정부 부문의 협력과 지원이 동남아시아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아세안협력기금의 지원으로 출판된 또 다른 사례로 한국동남아학회와 아세안대학네트워크(AUN)가 공동으로 발간한 ‘*ASEAN Community and Managing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2016)를 들 수 있다. 이 책자는 2013년 말레이시아 피낭과 2015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각각 개최된 한-아세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물 중 아세안 공동체와 전통 및 비전통 안보 관련 논문들을 선택하여 출판한 것으로 한국과 아세안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국내 연구자들의 아세안 관련 연구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⁵

⁵ 국내 연구자가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아세안 관련 연구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는 Bae Ki-Hyun(2015; 2017), Kim Hyung Jong(2011) 등이 있다.

III. 아세안 연구의 특성

아세안 연구는 아세안 역내 통합의 심화와 동아시아로의 협력 확대라는 이중적 현상이 창출한 다양한 연구 수요에 부응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왔다. 2015년 말 아세안공동체의 출범은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아세안의 협력과 통합을 목표로 ‘과정’으로서 아세안 연구의 영역이 극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아세안의 발전이 가져온 연구 과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기된다. 첫째, 아세안 연구가 동남아시아 연구의 하위 분야로서 국제제도로서 아세안 연구의 심화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전문가들의 연구 성과와 주제들이 지역적 차원의 의미를 도출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기존 지역 연구에서 지역적 맥락으로 확대하며 아세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 이를 보완하려는 접근이다. 셋째, 아세안을 광의의 지역적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접근이다. 아세안 연계성과 중심성 등으로 제시되는 아세안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 학문분과 차원에서의 지역 간 또는 다차원적 지역성에 주목하는 접근이다. 이들 접근법과 관련하여 아세안 연구자 그룹은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위의 접근법 중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아세안의 제도, 규범, 대내외 국제관계, 안보, 지역주의 이론 등에 주목하여 아세안 연구를 확대하는 연구자 그룹이다. 이 경우 주로 국제관계학 접근을 취하고 있다. 국내 아세안 연구자 그룹의 연구는 이러한 접근과 연구 경향을 갖는다. 전문 연구자 그룹의 다수는 아세안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던 연구자들로 구성된다.⁶ 배궁찬, 이재현, 최경희 등도 아세안 연구자 그룹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는 아세안공동체 확대에 따라 다양한 관련 이슈에 주목함으로써 아세안 연구의 영역을 확대해왔다. 경제통합의 정치적 요인, 테러리즘, 환경, 역내 갈등 등 이른바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아세안의 역할과 지역협력의 의미를 조명했다. 무엇보다 1997~1998년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

⁶ 아세안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 후 꾸준히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주요 연구자들은 변창구, 김석수, 박광섭, 김형중, 배기현 등이다.

아세안이 주도적이고 핵심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아세안의 동아시아적 함의를 조명하는 데 기여했다.

두 번째 연구 그룹은 특정 시안의 아세안적 함의를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한 특정 국가 중심의 지역연구자들로 구성된다. 학문적 배경은 국제관계학이 아닌 비교정치, 정치경제, 인류학 등의 다양한 접근을 가지며 지역적 차원의 협력과 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왔다.

세 번째 연구자 그룹은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연구의 의미보다 분과학 문에서의 비교연구를 위한 아세안의 사례에 집중하는 연구자들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과 수요는 주로 한국과의 무역 및 투자관계, 아세안 시장분석, 경제통합, 아세안 FTA 효과 등을 연구하는 경제학자 그룹에서 발견된다. 특히 한-아세안 FTA를 비롯해 역외 국가와 체결한 FTA 협정에 대한 효과 분석이 급증했다. 주목할 점은 권율, 이충열, 광성일 등은 아세안경제공동체와 개발협력 등의 주제에 집중하며 지역적 이해를 바탕으로 아세안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자 그룹의 형성은 아세안 연구의 확대와 발전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들 연구자 그룹 간 연구 분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세안의 역동적 활동과 광범위한 협력 분야는 아세안 연구에 있어 학제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단행본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립외교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아세안대표부, 한-아세안센터 등은 각기 다른 형태로 아세안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국립외교원의 정책 연구와 주아세안대표부와 한-아세안센터의 대중 간행물은 아세안 연구의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부 연구자의 공동연구 참여와 연구지원 활동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한정된다. 한편, 아세안대표부 현 관계자 또는 이전 관계자들의 아세안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서정인 대사(2012)와 박민정 협력관(Howe and Park, 2017)이 현직 외교 관계자로서 논문을 작성했고, 아세안 핵심 연구자 그룹의 연구자 중 2명은 아세안대표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아세안 관련 연구는 연구비 지원에도 영향을 받는다. 연구재단의 아세안 관

런 연구비 수주는 개인 연구 3건에 불과하다.⁷ 최근 연구재단의 정책연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아세안공동체의 출범과 같은 중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연구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낸다.

IV. 결론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은 아세안의 발전과 동남아시아의 역동성을 상징하지만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비전은 아직은 일반 시민에게 낮은 엘리트주의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공동체 지향의 지역적 비전은 개별 국가 이익과 상충될 가능성도 있다. 다양한 지역적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 확대도 필요하다.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정치학과 경제학의 통합이론 사례로 연구되었던 아세안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연구도 양적으로 팽창했으며 연구 분야도 다양해졌다. 정치안보 영역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테러리즘, 재난대응 등 정치발전과 비전통적 안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융,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시장통합에 관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사회문화 영역은 아세안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최근 빈곤, 발전격차, 환경, 교육, 정체성 등의 이슈들이 공동체적 가치 공유를 위한 중요한 사안들도 대두되고 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이행과정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이 주요 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지만 아세안의 정보공개 미흡으로 인해 연구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즉, 정부 간 협상과 보고에 있어 구체적 내용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들 연구가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아세안의 특성과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공동체의 성공은 정치안보 및 사회문화 공동

⁷ 최원목, 한국과 아세안의 자유무역통합에 관한 통상법적 분석(2005, 대학연구인력구제교류지원사업); 선옥경, 중국과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농산품 위생검역에 관한 연구(2011, 학문후속세대지원 박사후 국내연수사업); 김형중, 동남아시아 민주화와 아세안규범(2016,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체 축을 포함하여 세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작동할 때 가능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의 역사, 문화, 제도,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맥락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 공동체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그 의미를 총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연구에 있어 국제관계학, 정치학, 경제학, 인류학, 역사학, 사회학 등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그 과정에서 개별 국가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아세안 연구에 집중하는 전문 연구자의 수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연구자 간의 네트워크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문 연구자 간 학문세대 격차로 인해 공동 연구 활동도 제한적이다. 최근의 사례(김형중·배기현, 2017)를 제외하고 아세안 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활동 중인 아세안 연구자들 다수의 박사학위 논문이 아세안 관련 연구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아세안을 주제로 더 많은 학위논문 작성이 필요하다. 아세안 연구가 지역연구와 분리된 채 각 분과학문의 이론을 시험하는 사례로만 다루어진다면 아세안공동체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 국제관계학, 경제학과 같은 이론지향적 접근이 지역연구와 접목될 때 지역연구로서의 아세안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확산은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아세안을 이해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이 직접 당사자인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과 지역주의에 대해 국제관계학, 정치학, 경제학 등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의 역할에 주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즉, 직접적으로 아세안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중요 역내 행위자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선도해온 아세안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갈등의 심화과정에서 일본을 비롯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된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도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어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침체를 겪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정체는 관련 연구와 연구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 연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⁸

⁸ 배기현 이메일 인터뷰. 2017년 6월 4일.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개최됐고 외교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에서 아세안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아세안 관련 외교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작업이다.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국제관계 문제 해결에 있어 지역협력과 공동체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아세안공동체 연구는 외교적 지평을 동북아에 제한하지 않고 동아시아 차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국가 정책적 차원의 연구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한국 정부의 대 아세안 정책은 대북 견제를 위한 외교적 지지 획득 그리고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이익의 확대 방안에 집중되었다. 동아시아 공동체적 가치 그리고 한반도 위기 해결에 있어서 동반자로서 아세안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신윤환은 한국과 아세안의 상보성을 정치안보협력까지 확대하는 아세안과의 연대를 실행하기 위해 한국의 대 아세안 인식의 전환과 한국의 아세안 가입과 같은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신윤환, 2017). 한국동남아연구소의 박사명 이사장은 2012년 자카르타에서 열린 포럼에서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5강 외교로 격상할 것을 주장했다. 최경희(2014)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 아세안에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아세안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아세안학’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력 균형을 위한 행위자나 경제이익을 위한 파트너십 연구를 넘어 동남아의 시각을 통해 아세안의 지역적 맥락을 파악하고 아세안을 구성하는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별 국가의 단순 합을 넘어서 회원국 간 유기적 상호작용에 주목해서 ‘아세안’을 분석단위로 상정한 연구가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제적 접근의 심화와 지역연구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으로서의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의 이해, 동아시아 등 다양한 차원의 접근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아세안학 센터 설립이 증가하는 현상은 이러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국내 아세안학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의 연구 강화와 정책적·제도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영문. 2012. 『아세안 FTA』. 전남대학교출판부.
- 공재형. 2016. “아세안 경제통합에 따른 캄보디아 농산업 부문의 대응.” 『한국관세학회지』 17(2), 169-186.
- 김규식. 2013. “태국의 아세안 교육.” 『동남아연구』 23, 105-126.
- 김대식. 1972. 『ASEAN과 東南亞 中立化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출판부.
- 김민정. 2006. “아세안(ASEAN)과 한국의 문화협력 활성화 모색을 위한 소고.” 『동아연구』 51, 71-104.
- 김석수. 1997. “日本の 對ASEAN 政策 過程 變化에 關한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진아·이재우. 2016. “환경협력의 거래비용적 접근법: 동남아시아 연무 오염 사례 연구.” 『경제연구』 34, 79-107.
- 김한식. 2002. “ASEAN의 응집력: 구조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45, 103-137.
- 김형중. 2014.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APSC)의 쟁점과 전망.” 『국제정치연구』 17, 133-153.
- 김형중. 2015.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ASCC): 쟁점, 도전과 전망.” 『동남아시아연구』 25, 1-35.
- 김형중. 2016. “한-아세안 대화관계와 아세안 규범: 1980년대 초반 외교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6, 39-76.
- 김형중·배기현. 2017. “아세안 2016: 아세안 방식의 변화 또는 연속성.” 『동남아시아연구』 27, 155-184.
- 나희량. 2015.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아세안 역내무역 분석 및 시사점: EU, NAFTA, MERCOSUR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5, 31-84.
- 문상원·이하늘. 2013. “아세안 내 개발격차감소와 역량개발 관점으로 본 KOICA의 CLMV 지역 지원전략.” 『국제개발협력』 2, 121-152.
- 박광섭·이요한. 2008. 『아세안과 동남아 국가연구』. 大徑.
- 박변순. 2013. “아세안 경제협력의 진화와 평가.” 『동남아시아연구』 23, 1-33.
- 박사명. 2005. “전장에서 시장으로: 중국-동남아 관계의 지속과 변화.” 『동남아시아연구』 15, 1-40.
- 박사명 외. 2008. 『위기에서 협력으로』. 이매진.
- 배공찬. 1993. “ASEAN의 아·태지역 다자안보구상과 전망.” 『동남아시아연구』 2, 243-

258.

- 배기현. 2015. “아세안 연계성의 정치.” 『국가전략』 21, 171-192.
- 변창구. 1987a. 『ASEAN의 地域安保協力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창구. 1987b. 『ASEAN安保論』. 형설출판사.
- 변창구. 1996. “국제레짐으로서 ASEAN의 특성.” 『국제정치논총』 42, 115-32.
- 변창구. 1997. “ASEAN의 동남아 비핵지대전략: 진전과 전망.” 『연구논문집』 56, 439-459.
- 변창구. 1998. “남중국해 분쟁과 아세안의 다자주의적 접근.” 『국제정치논총』 37, 137-167.
- 변창구. 1998. “동남아 경제 위기와 아세안의 대응.” 『영남국제정치학회보』 1, 37-59.
- 변창구. 1998. “중국의 동남아 접근정책과 중-아세안 관계의 전망.” 『21세기 정치학회보』 14, 199-224.
- 변창구. 1999. 『아세안과 동남아국제정치』. 대왕사.
- 변창구. 2000. “동남아 환경안보와 아세안의 협력.” 『대한정치학회보』 8, 57-77.
- 변창구. 2002a. “국제레짐으로서 ASEAN의 운영체제.” 『국제정치논총』 42, 9-32.
- 변창구. 2002b. 『아세안 운영체제론』. 대왕사.
- 변창구. 2003. “아·태지역 안보와 ARF.” 『대한정치학회보』 11, 239-259.
- 변창구. 2004a. “동남아시아 지역통합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 중국위협론의 실체와 아세안의 대응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8, 105-125.
- 변창구. 2004b. “미국의 동남아시아 대테러정책.” 『대한정치학회보』 11, 53-73.
- 변창구. 2011. “구성주의 이론에서 본 ASEAN의 정체성과 지역통합.” 『대한정치학회보』 18, 25-43.
- 변창구. 2011. “ASEAN 지역통합 강화와 AC 결성: 영향과 함의.” 『대한정치학회보』 24, 147-162.
- 변창구·김경일. 1998. “21세기의 도전과 아세안의 미래.” 『법정연구』 5, 67-92.
- 변창구·이정태. 1998. “아세안의 확대와 동남아공동체의 비전.” 『법정연구』 5, 93-119.
- 서기준. 1999. “ASEAN의 發展過程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정인. 2012. “연구논문: 한국의 대ASEAN 외교.” 『동남아시아연구』 22, 179-308.
- 신두철. 2001. “아세안과 유럽연합의 역사적·제도적 발전비교.” 『한독사회과학논총』 11, 23-50.
- 신윤환. 2009. “동남아의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그 역사에 대한 재해석.” 『동아연구』 56, 107-137.
- 신윤환. 2017.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경제협력을 넘어 포괄적 연대로.” 제주평화포럼

- 아세안저널리스트 라운드테이블 기초연설문, 2017년 5월 31일.
- 안상욱. 2016. “경제통합과 저가항공 네트워크 발전: EU와 ASEAN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34, 287-308.
- 안청시 외. 1981. 『동남아와 ASEAN』. 서울대학교출판부.
- 양승윤. 1978. “ASEAN의 발전양상과 문제점.”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승윤. 1996. 『동남아와 ASEAN』.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윤종진. 1987. “중공의 대ASEAN외교정책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금찬. 1987. “유럽공동체(EC)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관한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동윤. 2010. “동남아의 인권정책과 지역협력.” 『21세기 정치학회보』 20, 227-248.
- 이순학. 1987. “Kampuchea 분쟁이 Asean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요한. 2004.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와 개발격차 해소: GMS를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26, 75-100.
- 이요한. 2005. 『동아시아의 허브: ASEAN』. 두남.
- 이요한. 2017.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와 개발격차 해소: GMS를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26, 75-100.
- 이원근. 2016. “AEC 출범의 의미와 시사점 및 과제에 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4, 151-171.
- 이원우. 2008.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제약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재현. 2007a. “마하티르와 김대중의 동아시아지역협력 구상 비교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7, 33-64.
- 이재현. 2007b. “마하티르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 분석.” 『국제정치논총』 47, 121-144.
- 이재현. 2012. “전환기 아세안의 생존전략: 현실주의와 제도주의의 중층적 적용과 그 한계.” 『동아연구』 62, 49-82.
- 이충열. 2014. “아세안 경제공동체 탄생에 대한 기대와 현실.” 『동남아시아연구』 24, 253-303.
- 이효영. 1994. “AFTA의 결성배경에 관한 연구.” 『經營經濟』 27, 97-109.
- 전웅. 1977. 『지역통합이론과 ASEAN』.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웅. 1979. 『지역통합이론과 아세안 신기능주의의 경험적 검증』. 진명출판사.
- 전제성. 2007. “동남아의 참여적 지역주의와 “동아시아공동체.” 『동남아시아연구』 17,

101-130.

- 최경희. 2014.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건설과 평화체제 구축의 현황과 시사점.” 서울대 신흥지역연구사업단 정책보고서 『2015 아세안 공동체 건설현황과 전망: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별 접근』 13-44.
- 최기출. 2010. “南砂群島 紛爭.”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호림. 2010. “동남아시아의 이주노동자 지역 거버넌스.” 『동남아시아연구』 20, 135-178.
- 한승주. 1992. “아세안과 동아시아의 지역안보.” 『동남아시아연구』 1, 5-18.
- Acharya, Amitav. 2000. *The Quest for Identity: International Relations of Southeast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e, Ki-Hyun. 2014. “Managing International ‘Relations’: ASEAN’s Dilemma of Attraction-Autonomy Deficits and Ideational Changes after the Cold War.” Ph.D. Thesis, University of Toronto.
- Bae, Ki-Hyun. 2015. “Neither Left-out Nor Pushed-over: Anxious ASEAN and Its 4C Practices.” *Pacific Review* 28, 703-729.
- Bae, Ki-Hyun. 2017. “ASEAN as a Community of Managerial Practices.” *Global Governance* 23(2), 245-263.
- Howe, Brendan and Park, Min Joung. 2017. “The Evolution of the “ASEAN Way”: Embracing Human Security Perspectives.” *Asia-Pacific Social Science Review* 16(3): 1-15.
- Kim, Hyung Jong. 2011. “The Evolution of ASEAN Norms: Development, Adaption, and Transformation.” Ph.D. Thesis, University of Malaya.
- Kim, Hyung Jong and Lee, Poh Ping. 2011. “The Changing Role of Dialogue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Southeast Asia.” *Asian Survey* 51, September-October, 953-570.
- Kim, Hyung Jong and Lee, Jaehyon, eds. 2016. *ASEAN Community and Managing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Korea*. Busan: Sejong Press.
- Lee, Choong Lyol, Hong, Seok-Joon, and Youn, Dae-yeong, eds. 2015. *ASEAN-Korea Relations: Twenty-five Years of Partnership and Friendship*. Seoul: Nulmin Books.
- Park, Kwang Sub. 1995. “The response of ASEAN and its Member Countries to the Challenge of Global and Regional Changes Created by the Post-Cold War Era.” Ph.D. Diss. University of Santo Tomas.

Abstract

ASEAN Studies in Korea: Exploring “ASEAN Studies?”

Hyung-Jong Kim Yonsei University

Studies o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in Korea have developed with the incremental institutionalization of ASEAN and its growing strategic importance. The development of ASEAN has contributed on the formation of regional identity in Southeast Asia. ASEAN Studies are expect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Southeast Asia as a single entity by bridging traditional disciplines and area studies. This article aims to draw the characteristics of ASEAN studies in Korea by reviewing academic researches published in various forms including PhD dissertations and MA thesis, journal articles and books. It is discovered that several factor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ASEAN community, East Asian regionalism, ASEAN-Korea relations have also encouraged ASEAN-related studies in Korea. ASEAN has increasingly attracted a wide range of research groups beyond the traditional IR approach. Greater institutional support and academic attention are needed to explore “ASEAN studies” beyond policy studies.

Keywords | ASEAN, Southeast Asia, Area Studies, East Asia, ASEAN studies

